

2019 문화계 결산 ④ 문학

지역출신 작가들 문학상 수상 '文郷의 저력'

한승원·김신운 등 창작집 잇따라 동주문학상 공모전 위상 높아져 상금 1억원 조정래 문학상 신설 광주문학관 내년말에 착공 가능



보성군 별교읍민회는 올해 국내 최대 규모인 상금 1억원을 내건 '조정래문학상'을 제정했다. 사진은 태백산맥문학관 벽화.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한승원 소설가



김신운 소설가

올해 문학계는 조정래(‘천년의 질문’), 한승원(‘꽃에 쓰여 산다’), 김신운(‘귀향’), 고재중(‘고요를 사정하다’) 등 원로와 중견 작가들의 창작집 발간이 잇따랐다. 이밖에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김선태 시인의 ‘목포문학사와 전남시단사’를 비롯해 차노희 작가(‘죽음의 섬’)의 책이 출간됐다. 또한 함평 출신 이승철 시인은 광주 전남문학사 100년 ‘광주의 문학정신과 그 뿌리를 찾아서’를 통해 광주전남 근현대문학사를 집대성했다.

이밖에 목포 출신 김세희 작가(‘가만한 나날’), 정운천 시인(‘발해로 가는 저녁’), 김경은 시인(‘슬픔의 바다’), 광주전남작가회의 사무처장 주영국 시인(‘새집을 치는 저녁’) 등이 작품집을 펴냈다.

올해부터는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제정한 윤동주서시문학상이 동주문학상으로 이름을 바꿔 공모전이 진행됐다. 참신하고 유능한 시인들을 발굴해 창작활동을 북돋우자는 취지다. 총 430명이 시집 응모를 했으며 5편의 후보작품이 최종본심에 올랐다.

유시시인으로도 알려진 정현우 시인이 동주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됐으며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한 동주해외작가상은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국희 시인에게 돌아갔다. 또한 동주해외작가특별상에는 미주 문협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용진 시인이 선정됐다.

1억원이라는 국내 최고의 상금을 내건 조정래문학상 제정도 뜻 깊은 소식이었다. 보성군 별교읍민회가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1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조정래문학상’은 중견 작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에 전념해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1회 수상자로

장편 ‘왕은 안녕하시다’를 쓴 성석제 작가가 결정됐다.

조정래(1941~99) 시인을 기려 제정한 ‘제1회 조정래문학상’에는 장흥 출신 이대흠 시인이 선정됐으며, 수상시집은 ‘당신은 북천에서 온 사람’이다. 이밖에 광주 출신인 장은진 작가의 이효석문학상 대상 수상, 박솔보 작가는 김현문학상을 수상해 문향의 저력을 과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담양 송순문학상 대상에는 완도 출신 시조시인 박현덕이 선정됐다. 수상작 ‘대수에 들다’는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순의 문학정신과 가장 부합된다는 평가가 따랐다.

아울러 14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문학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돼 내년 말 착공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광주문학관은 총사업비 171억 원으로, 1순위로

로 선정된 북구 시화마을 일원에 건립될 계획이다. 세종시를 제외한 문학관 없는 유일한 광역도시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시아의 역사를 문학이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해왔는가를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지난 10월 10일 아시아문화주간 행사 기간에 펼쳐진 아시아문화포럼은 5월 광주 정신과 맞닿은 ‘인권, 평화, 치유, 연대’의 가치와 의미를 재구성하고 문학적 실천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또한 제2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작인 바오닌의 ‘전쟁의 슬픔’을 극단 오딘이 공연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20 제3회 아시아문화페스티벌’을 추진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한승원 작가는)는 지난 2018년 제2회 아시아문화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행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2020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2019년은 2020년 본 행사를 위한 사전 행사들로 꾸미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수필문학의 대부 매원(梅園)박연구(1934~2003) 작가의 문학비가 담양조각공원에 세워진 것도 의미 있는 소식이었다. 대표작 ‘뫼난이가게’의 작가인 그는 고향 담양을 배경으로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민한 조선대 교수, 현대미술학회 차기 회장 선출

장민한(사진)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교수가 현대미술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현대미술학회는 최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19 현대미술학회 추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장 교수를 후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현대미술학회는 현대미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됐다. 장민한 교수는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미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장, 제5회 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 조선대 미술학과 시각문화큐레이터 전공 교수로 재



도시플랫폼 운영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직 중이다. 현재 한국미학회 학술이사, 유림문화예술학회 총무이사, 한국예술경영학회와 문화예술경영학회 편집위원, 유네스코미디어아트장의 도시플랫폼 운영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2020년 호남예술제 제65회 전통의 종합예술제전. 제65회 호남예술제 전국대회 음악부 지정곡. Table with columns for category (구분) and designated works (지정곡). Includes sections for '개최요강(음악부문)', '유의사항', and '문의'.

김원중의 달거리 올 마지막 공연

30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뽕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112번째 공연이 올해 마지막으로 관객들과 만났다.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1층 피크뮤지홀. 공연 주제는 ‘다시 시작할 시간’으로 올한해 달거리공연에 함께한 아티스트, 관객들과 2020년에도 변함없이 평화의 길을 열어 가기 위한 염원을 담았다.

이번달 공연은 한반도 평화의 여정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포크, 국악, 샌드아트, 애니메이션,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준비했다. 김원중과 박성연밴드, 소프라노 유형민, 소리치다 in band, 화가 주홍, 프롤로그인밴드, 우물안개구리 등이 출연한다. 또 초대손님으로 옥류금 연주자 김하현(사진)씨가 함께한다. 김 씨는 가야금 전공자로 서울시 청소년국악단 대표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



큐멘타리에 출연해 강원도 철원 DMZ에서 옥류금을 연주하기도 했다. 입장료는 감동후불제로 진행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재 가야금을 개량한 북한 대표 현악기 ‘옥류금’ 연주자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국방TV와 국악방송이 공동제작한 ‘DMZ’ 다

Advertisement for '개업·성업 안내' (Opening/Business Announcement)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such as '나주산약초', '우영생기원', '동양철학원', '다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삼대(삼대)원조 나주공방', '황금세차장(주)', '함께와들개', '박당화랑', '석당화랑', 'OK당구장', '완도전북',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양지공인중개사',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진주공방', '청강창호', '고전방', '광주갤러리경매장', and '신신예술의집'.